

뿌리 칼럼 | 2016년 2월 3일

기간제 교사 폭행 사건, 해결의 주인공을 묻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때 희생된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그들과 함께 순직한 교사, 한마디로 참교사이기에 충분했던 이들에 대해 정부는 ‘교사’로 인정하기를 거부했다. 부러먹을 때 정규직 이상으로 부러먹으면서도, 책임을 지는 것은 완강히 거부하는 자본가들의 속성 그대로를 빼닮았다.

정부와 자본가들의 이런 태도가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 교육에서도 이런 사회의 모습은 거울처럼 투영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터진 이른바 기간제 교사 빗자루 폭행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이 사회 비정규직 노동자의 자화상

출석체크에 대답하지 않은 학생을 무단결석 처리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세 명의 학생들이 30대 기간제 교사를 폭행하고 이 동영상은 유포됐다. 여기까지는 교권 침해의 한 장면으로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정규직 제도의 민낯이 드러난다.

기간제 교사는 대개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짧게 계약을 맺은 비정규직 선생님들이다. 잠시 머물렀다 떠나는 선생님들의 권위가 설 수 없는 구조다. 오랜 기간 학생들의 성장과정을 세심히 살피고, 학생들과 길게 소통해야 가능한 정서적 유대감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권위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이와 유사한 폭력이 이미 6개월 이상 일상적으로 자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단지 빗자루 폭행 장면이 동영상으로 SNS에 유포됨으로써 이제야 표면 위에 드러났을 뿐이다. 주변 학생들은 가해 학생들이 피해 기간제 교사의 머리를 쓰다듬는 등 인격 모독 행위를 오래 전부터 했다고 증언한다. 그동안 피해 기간제 교사는 이런 사실을 공개해 학생의 처벌을 요구하지 않았고, 이런 대응이 이번 빗자루 폭행 사건까지 불러온 것이다.

엄청난 수치심 앞에서도, 그리고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제도적 장치가 있는데도 왜 피해 교사는 무대응으로 일관했을까?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짓까지 벌이게 빌미를 제공했을까?

기간제 교사는 고용 불안 때문에 학교 눈치를 보게 된다. 이런 사건이 알려지면 “학생을 통제할 능력이 없다”고 찍혀 재계약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조용히 있게 된다. 교권 침해로 인정을 받더라도 문제가 된다. 정규직 교사는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거나 심리 치료를 위해 병가를 낼 수 있지만, 기간제 교사는 바로 채용이 중단되는 상황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결국 일자리와 맞바꾸지 않는 한, 교권을

지킬 길이 없는 셈이다. 사실상 쉬쉬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교권 침해 사례는 2만 6천 건인데, 가장 빈번하게 교권 침해를 당하는 기간제 교사는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 신고 자체가 별로 없으며, 통계 자체도 볼 수 없다. 한마디로 교권, 즉 교사의 권리를 기간제 교사는 박탈당하고 있다. 이 땅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광범위한 기간제 교사 제도, 누구의 책임인가?

교권을 사실상 박탈당한 기간제 교사의 비율은 높다. 전국적으로 대략 10% 수준, 2015년 4월 기준으로 47,000명에 달한다. 사립학교에서는 그 비율이 더 높다. 이들은 권리에서는 배제되지만, 업무 영역에서는 과도한 일에 시달린다. “1년간 매일 아침 7시에 혼자 교문지도 할 수 있는 기간제 교사”를 구하는 학교도 있다. 기간제 교사의 절반이 정규직 교사가 맡기 꺼려하는 담임교사를 떠맡고 있다. 동아리 담당교사, 방과 후 지도교사 등의 업무도 기간제 교사의 몫이다. 한마디로 기피 업무를 죄다 떠맡고 있다.

교육재정 절감을 내세워 기간제 교사 확대를 방관하는 정부, 그리고 비용절감을 내세우는 사립학교 자본이 이런 기간제 교사 제도를 온존시키고 확대하는 주범이다. 이들에게 책임이 있다. 이에 비한다면 가해자 학생들은 비정규직 제도라는 연극 무대의 조연일 뿐이다.

그런데 자본가 언론은 비극을 연출하고 있는 무대감독인 비정규직 제도, 그리고 이 제도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는 자본가계급과 그들의 정부에게 책임을 묻는 대신,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 <매일경제> 최경선 논설위원이 발표한 글 “그러고도 ‘전교조’인가”는 그런 책임 전가의 표본이다.

그들은 책임지지 못한다면, 우리 노동자가 책임져야!

최경선 <매일경제> 논설위원의 글의 일부를 보자.

기대는 깨졌고 위안도 없었다. 전교조 홈페이지를 아무리 뒤져본들 ‘교사 빚자루 폭행’에 대한 성명서 한 줄 없다. ... 궁금해서 전교조에 전화를 걸었다. 이런 충격적인 교권침해 사건에 전교조가 침묵하고 있는 게 뜻밖인데 혹시 성명서를 발표하지 않은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다. “개인 인권이 소중하기 때문”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더니 “본인이 (사건 확대를) 원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했다. ... 전체 교사의 10%를 차지하는 기간제 교사 4만여 명은 이렇게 교권침해나 부당 대우를 당해도 이를 악물고 참을 때가 많다. 학생을 통솔하지 못했다는 질책을 받고 해고될까 두려워서다. ...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전교조가 “본인이 원하지 않았다”며 침묵한다.

전교조에 다시 물었다. 기간제 교사도 전교조 조합원으로 받아들이는지 궁금했다. “가입은 할 수 있는데 계약이 끝나면 탈퇴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지 잘 가입하지 않는다”고 했다. 전교조에 가입

한 기간제 교사가 얼마나 되느냐고 다시 묻자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공개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숫자가 적다고 고백하는 편이 차라리 솔직하지 않을까.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조계사에 도피했다가 지난해 말 경찰에 출두할 때 ‘비정규직 철폐’라는 머리띠를 매고 있었다. 민주노총 핵심 회원 조합 중 하나가 전교조다. 정규직 철밥통들의 귀족 노조라는 비난에 직면하면 ‘비정규직 철폐·보호’라는 머리띠를 둘러매고 정작 그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외면한다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2016년 1월 6일자 <매일경제>, “그리고도 ‘전교조’인가”)

기간제 교사 제도를 도입해 엄청난 교권 침해를 매일 같이 조장하고 있는 교육 자본과 정부에 대해 눈감고 있는 이 기사는 정말 ‘부끄러워해야 마땅’한 자본가 언론의 표본이다. 하지만 애당초 이들에게는 어떤 책임도 기대할 게 없다. 책임질 생각은커녕 파견제를 확대해 비정규직 제도로 세상을 덮어버리고자 발악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 점이 너무나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비판하고 있는 모든 것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다. 비록 ‘책임전가’, ‘기대기 수법’에 불과할지라도 말이다. 어쩌면 최경선 논설위원의 기사에는 상당히 중요한 진실이 담겨 있다. “놀라고 충격 받은 마음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홈페이지를 찾았다. ‘참교육’을 입버릇처럼 강조하는 단체 아닌가. 이 개탄스러운 사건을 준엄하게 꾸짖어 놓았으리라 생각했다. 학생들의 인성 붕괴와 교권 침해를 걱정하는 교육 현장 목소리를 들으며 조금이나마 위안을 삼으려고 했다.”고 그는 말한다(같은 글).

그렇다. 자본가 언론의 논설위원에게도 정부와 교육 자본가는 도저히 해결 주체가 아니라고 여겨진다. 오직 민주노조로 조직된 노동자들만이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그는 무의식 중에 생각하고 있다. 비록 그 기대는 깨졌지만, 오직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조직된 노동자들뿐인 것이다.

고통스러운 것은 문제의 유일한 해결 주체가 될 수 있는 ‘전교조’가 아직 충분한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점에서 “그리고도 ‘전교조’인가”라는 비아냥거림은 그냥 흘려버리면 그만인 비난이 아니다. 거기에는 ‘적’의 눈에 비친 우리 노동자 운동의 약점이 고스란히 묻어 있다. 그리고 이런 약점은 전교조만이 아니라 우리 노동자 운동 전체가 떨쳐버려야 할 거대한 질병이다.

질병을 치유하는 방법

노동법 개악과 정부 행정지침 발표로 코너에 몰리고 있지만, 지금 민주노조 운동은 단호한 반격을 조직하지 못한 채 비틀거리고 있다. 단순히 한두 가지로 접근하기 어려운, 중층화된 여러 원인들이 작동하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비정규직을 비롯한 다수 미조직 노동자들과 함께 하고 그들을 대변하는 계급적 노동 운동으로 전진하지 못한 채 조합주의에 갇혀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 도사리고 있음을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만약 전교조가 일상적으로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를 위해 투쟁하면서, 자본과 정부가 앓아가는 교권을 그들의 손에 쥐어줬다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나아가서 이런 비극 앞에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전면으로 내걸고 투쟁에 나섰다면, 그것은 거대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을 것이다. 최

소한 자본가계급의 나팔수인 <매일경제> 논설위원 따위가 전교조를 향해 비아냥거리고, 부끄러운 줄 알라고 소리치는 일은 절대 없었을 것이다.

계급적 연대를 통해, 이런 작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 그래서 그들을 향해 ‘부끄러운 줄 알라’고 호통 치는 운동이 절실하다. 이것은 노동자 운동의 치명적 약점 뒤에 숨는 자본가계급의 기대기 수법을 박살냄으로써 그들을 비틀거리게 만들고 그들의 파렴치한 민낯을 여과 없이 드러낼 것이다.

그리하여 자본가계급이 매일 토해내는 수많은 문제들을 책임지고 해결할 주인공은 오직 노동자계급임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고, 그렇게 세상을 뒤엎는 노동자 혁명의 길이 열릴 것이다. 또한 이런 계급적 연대 속에서만, 파상공격 앞에 비틀거리는 민주노조는 찬란하게 부활할 것이다. 그 점을 다시 상기시켜준 자본가 언론의 나팔수에게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보낸다!